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가치보다 물질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존재이다.
- ② 삶에 대한 성찰 없이 법과 제도만을 따르는 존재이다.
- ③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이다.
- ④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 ⑤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2.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양능(良能)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 양지(良知)이다. 두세 살 난 어린아이라도 자기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며 성장해서는 자기 형을 공경할 줄 안다.</p> <p>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性)을 교화하고 인위(僞)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따르고 정(情)에 순응해서 멋대로 성내고 이익을 탐하기 때문이다.</p>
(나)	

- ① A: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 ② A: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 없다.
- ③ B: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다.
- ④ C: 성정을 변화시켜야만 인의(仁義)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C: 인간은 생리적 욕구로 인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3. (가), (나) 사상의 공통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라함[自然]을 본받는다.
 (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보기>

- ㄱ.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므로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
- ㄴ.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 ㄷ.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
- ㄹ. 인간은 생명을 지닌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생(生)과 멸(滅)이 불이(不二)이고, 동(動)과 정(靜)이 무별(無別)이다. 이것을 일심(一心)의 법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실상은 둘이 아니고, 또 하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

을: 교와 관을 함께 닦는 것[敎觀兼修]이 불교 수행의 바른길이다. 만약 교를 배우며 관을 그만두거나, 관을 행하고 교를 그만둔다면 이 둘은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 ① 갑: 진리[眞如]의 모습과 생멸의 모습은 그 근원이 다르다.
- ② 갑: 원융회통(圓融會通)으로 종파의 다양성을 소멸시켜야 한다.
- ③ 을: 마음 수양인 교와 경전 공부인 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
- ④ 을: 선(禪)을 수행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대립하는 불교 이론들 간의 다툼을 극복하고 화합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명분[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리대로 되지 못하고, 말이 순리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한다.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과 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보기>

- ㄱ. 통치자는 명분보다 먼저 예악과 형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 ㄴ. 통치자는 예로써 질서를 바로잡아 백성을 교화할 수 있다.
- ㄷ. 통치자가 덕을 갖추지 않아도 백성을 편안하게[安人] 할 수 있다.
- ㄹ.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6. 다음 자료의 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자 카드>를 활용한 동양 윤리 사상 퀴즈

- 1단계: <보기 1>의 □에 들어갈 알맞은 글자를 <보기 2>의 글자 카드에서 찾아 선택하세요.

— <보기 1> —

용어설명

- :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도가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 : 큰 도가 행해지고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유교의 이상 사회이다.

— <보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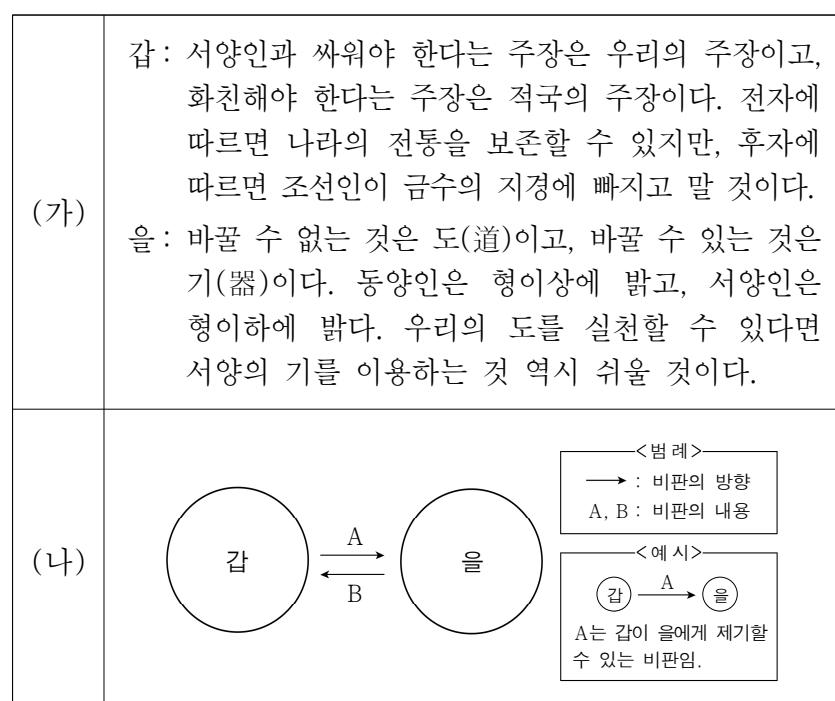
글자카드

대	상	보	사	약
선	살	회	동	수

- 2단계: 1단계에서 선택하지 않은 글자 카드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 정답: ⑦입니다.

- 불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 만물을 창조한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에 순응하는 사람이다.
- 좌망(坐忘)을 통해 소요(逍遙)의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독(三毒)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7.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A: 동양의 도와 서양의 문물을 공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A: 성리학적 가치를 보존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간과한다.
- B: 신분제를 폐지하여 만민 평등을 실현해야 함을 간과한다.
- B: 서양의 종교를 토대로 사회 혼란을 극복해야 함을 간과한다.
- B: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 표시를 한 학생은?

[3점]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苦聖諦]이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그리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五蘊] 자체가 괴로움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해탈(解脫)하기 위해 중도(中道)를 닦아야 한다.	✓			✓	✓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달아 고정된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	✓	
무명(無明)이 번뇌와 탐욕의 원인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	✓	✓			✓
윤회(輪迴)를 반복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선한 업(業)을 쌓아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9.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은 백 배가 되고,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백성은 효성과 자애를 회복하고, 기교를 끊고 이익이 되는 것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진다. 소박함을 드러내고, 순박함을 간직하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망을 적게 가져야만 한다.

-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녀야 한다.
- 무지(無知)하고 무욕(無欲)한 삶을 살아야 한다.
- 인의를 실천하는 것이 도(道)의 근본임을 깨우쳐야 한다.
- 무위(無爲)의 덕에 따라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
-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소국寡民(小國寡民)을 실현해야 한다.

10.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다투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禮義)에 따른 지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뒤에야 서로 사양하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게 되어 다스림으로 귀결될 것이다.

-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이라고 본다.
- 백성과 구별되는 본성을 타고나야 군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하늘이 부여한 도덕 규범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예치라고 본다.
- 군주는 덕과 능력을 헤아려 지위와 관직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 선천적으로 내재한 어진 마음을 표현한 사회 규범을 예라고 본다.

11.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있다'는 말은 나의 깊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알지 못할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 가운데 이(理)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p> <p>을 : 치지격물이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p>
(나)	<pre> graph TD A{A} -- 아니요 --> C{C} A -- 예 --> B{B} B -- 예 --> Gip[Gip] C -- 예 --> Eul[Eul] </pre> <p>Legend: —> : 출발 조건 (Initial Condition) ◇ : 판단 내용 (Judgment Content) ----> : 판단 방향 (Judgment Direction) ———> : 사상가의 입장 (Philosopher's Position) </p>

- <보기>
- ㄱ. A : 사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함양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 ㄴ. B :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 먼저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하는가?
 - ㄷ. C : 양지는 수양을 통해 생겨나는 도덕적 실천 능력인가?
 - ㄹ. C : 깊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깊의 완성[知行合一]인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p>갑 :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法)을 무(無)라고 말한다. 또 가명(假名)이라고도 하고, 중도(中道)의 이치라고도 한다. 인연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존재는 공(空) 아닌 것이 없다.</p> <p>을 : 외부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식 속에 나타난 표상은 다만 식(識)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눈병에 걸린 사람에게 터럭이나 두 개의 달이 보이듯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 허망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과 같다.</p>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고유한 자성(自性)이 없다. ㄴ. 중도는 실재하는 것이 없음[非有]에 집착하는 것이다. ㄷ. 만물은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생겨난다. ㄹ. 고정된 실체는 없더라도 오직 마음의 작용인 식만은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람들은 모장과 여희를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가 그녀들을 보고는 깊이 숨어 버리고, 새가 그녀들을 보고는 높이 날아가 버리고, 순록과 사슴이 그녀들을 보고는 급히 달아난다. 넷 가운데 어느 것이 천하의 진정한 미모를 아는가? 나의 입장에서 보건대 인의의 단서와 시비(是非)의 길은 어수선하게 섞여 있으니 내가 어떻게 그 구별을 알 수 있겠는가?

- ① 시비와 선악(善惡)을 분별하여 도(道)에 이르러야 한다.
 ② 성왕(聖王)의 가르침을 배워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
 ③ 마음을 비우기 위해 의로운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④ 개인의 주관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사물을 인식해야 한다.
 ⑤ 어떠한 외물(外物)에도 얹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하늘이 인간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하여, 선(善)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하고 악(惡)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하게 하였으니 선악을 하려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그 권능이 자신에게 달려 있어서 금수와 같지 않으므로 선을 이루면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이루면 자신의 죄가 된다.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지 성(性)이 아니다.

- ① 사단은 인의예지를 형성하기 위한 시작[始]이다.
 ② 인간의 자주지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이다.
 ③ 인간은 기호(嗜好)를 따를 때 언제나 선을 실천한다.
 ④ 인간과 동물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타고난다.
 ⑤ 육체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도덕적 삶을 이룰 수 있다.

15.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천하의 일 가운데서 효, 충, 신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덕행을 닦지 않고서 단지 방술(方術)에만 힘을 쓴다면 결코 오래 살 수 없다.
- 양생(養生)의 이치가 쉽사리 사라질 수 있음을 깊게 깨닫고, 본성을 닦아 정신을 보존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신체를 온전히 유지한다. 또한, 단약을 복용하고 심신을 보양하여 신체와 정신이 서로 친밀해지고, 신체와 정신이 모두 완전한 것이 되게끔 한다.

- ① 수련을 통해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의학을 활용한 질병 치료 행위를 배척해야 한다고 본다.
 ③ 현세적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④ 양생을 위해 신체가 아닌 정신만을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⑤ 도덕적 실천을 배제하고 종교적 구원만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1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는 일원상(一圓相)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取捨)의 삼학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삼학과 의식주로써 진리를 얻어서 영육(靈肉)을 쌍전(雙全)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라.
을: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한울이 또한 즐거워하느라.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바로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께서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께서 반드시 즐거워하느라.

- ① 갑: 물질문명을 거부하고 정신문명을 개벽(開闢)해야 한다.
- ② 갑: 정신과 육체를 조화시켜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을: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봉건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④ 을: 민생 안정을 위해 서학(西學)과 유·불·도 사상을 수용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오직 내세의 복된 삶을 위해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간은 누구든지 타고난 바탕을 따른다면 선을 행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 우산(牛山)의 숲은 아름다웠지만, 도끼로 베어내니 계속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도 본래 인과 의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①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수양을 통해 획득되는 것인가?
- ② 어린아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본성에 따른 것인가?
- ③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④ 화성기위(化性起偽)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가?
- ⑤ 호연지기(浩然之氣)는 후천적 노력 없이도 기를 수 있는가?

1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도(道)는 낳아 주고, 덕(德)은 길러 준다. 낳아 주되 소유하지 않으며, 함[爲]이 있되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라게 해 주되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묘(玄妙)한 덕이라고 말한다.

을: 도에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고, 인(仁)에 의지해야 한다.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 하루 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다.

- ① 갑: 무위자연의 삶은 충(忠)과 서(恕)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 ② 갑: 만물의 근원인 도는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규정할 수 있다.
- ③ 을: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저질로 다스려진다.
- ④ 을: 예는 귀천(貴賤)과 장유(長幼)를 분별하지 않는 외적 규범이다.
- ⑤ 갑과 을: 도에 따라 덕을 실현하면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19.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사단은 이(理)가 발(發)하고 기(氣)가 이를 따름으로써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면서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칠정이라는 감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 ① 갑: 사단과 칠정은 발하는 연원이 다르다.
- ② 갑: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一邊]일 뿐이다.
- ③ 을: 사단은 일반 감정이고 칠정은 도덕 감정이다.
- ④ 을: 칠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감정이다.
- ⑤ 갑과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선악이 혼재된 감정이다.

20.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진정 올바른 반야(般若)를 일으켜 살펴보면 찰나 간에 잘못된 생각은 모조리 사라지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성을 인식하여 한 번 깨달으면 곧장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을: 자성이 본래 공하고 고요해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닫더라도, 오랫동안의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은 후에도 법력으로써 익히고 닦아야 한다.

<보기>

- ㄱ. 갑: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점수(漸修)해야 한다.
- ㄴ. 을: 진리를 단박에 깨쳐[頓悟]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ㄷ. 을: 습기 제거를 위해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 ㄹ. 갑과 을: 본성을 자각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직관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